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 사제, 보제, 수도자들과 모든 충실한 자녀들에게 보내는
모스크바 및 전 루시의 키릴 총대주교 성탄절 서신
주님 안에서 경애하는 주교님들, 존경하는 사제님들과 보제님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수사님들과 수녀님들, 친애하는 형제자매님들!

지금,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함께 일치하여 육화하신 하느님을 찬미하는 이 때 여러분 모두께 위대하고 찬란히 빛나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묵상에 우리의 찬 시선은 또 다시 2천여 년 전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향합니다. 우리는 구유에 누우신 온유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분을 둘러싼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과 의로운 요셉 그리고 목자들은 구세주께서 세상에 내려오신다는 소식을 첫번째로 접하였고, 두번째로는 천군천사들이 접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평화와 선의(善意)를 베푸신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를 찬미하였습니다.

성 그리고리오스 신학자는 이 대축일의 본질을 논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축제는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오셨음에 관한 것입니다.”(제 38 설교) 이제 참으로 우리에게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고,”(마태오 3:2) 옛날 예언들이 실현되어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셨고,(창세기 49:10)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릴 것입니다.”(이사야 9:6)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요한 14:27)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구세주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찬송하였던 평화란 어떤 것일까요? 과연 그 때 이래 세상에는 적의(敵意)와 갈등이 줄어들었습니까? 우리는 모든 곳에서 “평화, 평화!”라는 외침을 듣지만, 예언자가 말하였듯 평화는 전혀 없습니다.(예레미야 8:11)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세상에 임한 하느님의 참 평화는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습니다.”(필리피 4:7) 이는 외적인 조건들에 구애 받지 않고 슬픔과 한시적인 삶의 상실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내적인 평화는 죄만 빼고 우리와 완전히 유사한 인간이 되신 하느님 그 자신으로 귀결되어, 이미 우리의 역사에서 단순히 작용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눈에 띄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총과 진리가 충만합니다.”(요한 1:14) 친애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절대 잊지 말고 좌절하지 맙시다! 삶의 모든 여건들에서도 우리의 힘과 굳건한 희망 그리고 위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육화하신 기적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하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를 찬미하면서 이와 함께 우리는 오늘날 진행 중으로 거룩한 성탄 축제를 어렵게 만드는 전쟁 사건에 대하여 사도 바오로가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1 코린토 12:26)라고 지적하듯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 루시의 민족들이 직면한 이 시련 중에 우리에게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소명에 대한 충실성을 입증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일입니다. 갈수록 우리가 보기에 선(善)은 약하고 보호 받지 못하며,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는 영적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고, 이웃을 위하여 자기 시간을 희생하며, 물질적 수단으로 돕거나 또는 단지 그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사랑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변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무언가 매우 귀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비밀은 이 어렵지 않으나 효과적인 영적 법칙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행복은 물질적 부와 고통 없는 삶에 대한 허황된 망상에 쫓기는 몇몇 사람들 생각처럼 저 머나먼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요한 10:10) 육화하신 하느님을 선행으로써 찬미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고 그분께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허락할 때 우리 영혼을 복된 평화와 안식이 다스리고,(마태오 11:29) 우리 자신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느님 나라의”(루카 17:21) 참여자가 됩니다.

우리는 과연 탄생하신 주님을 안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슬퍼하는 이를 안아주고 고난을 겪는 이를 위로해줍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느님이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바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과 배려를 이웃에게 선사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가능한한 자비를 베풀고 좌절하는 이를 격려해줍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오 25:40)

“성탄 성야는 온 세상에 평화와 안정을 주노라!”라고 시리아인 성 에프렐 수도자는 외치고 감동에 떨며 계속 노래합니다. “이 밤은 온유하신 분께 속하니, 그러므로 모두가 분노와 엄혹한 마음을 내려 놓으리라. 이제 자비의 날이 밝았고, 아무도 원한 어린 복수를 추구하지 않으리라. 기쁨의 날이 되었으니, 아무도 다른 이에게 슬픔과 비애의 이유가 되지 않으리라.” (그리스도 성탄 성가 I)

'광야의 시리아인 예언자'의 이 놀라운 말을 경청하고, 우리를 위하여 육화하신 주님께 마음을 엽시다. 온 세상의 임금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러 온유하게 세상에 오셨으니 기뻐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향한 창조주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로 답하면서 시험의 인내와 열렬한 기도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선행들로 우리 영혼을 성화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모두께 거듭해서 찬란한 그리스도 성탄 대축일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집과 가정에 그치지 않는 기쁨과 안녕, 하느님이신 아기 예수님으로부터의 강한 힘과 후한 도우심을 바랍니다. 자애로우신 조물주, 역사의

참된 주님께서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입을 모아' 육화하신 구세주를 찬양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에 차 증언하도록 거룩한 루시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모두를 평화로 강복하시리!

모스크바 및 전 루시 총대주교 키릴

2022/2023 년
그리스도 성탄절
모스크바